



제목 Theme: 참 빛의 증언자 The Witness of True Light

본문 Scriptures: 요한복음 St John 2:1-11 절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All things came into being through Him, and apart from Him nothing came into being that has come into being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did not comprehend it
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There came a man sent from God, whose name was John
7.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He came as a witness, to testify about the Light, so that all might believe through him
8.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He was not the Light, but he came to testify about the Light
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There was the true Light which, coming into the world, enlightens every man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He was in the world, and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and the world did not know Him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He came to His own, and those who were His own did not receive Him.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who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saw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John testified about Him and cried out, saying, "This was He of whom I said, 'He who comes after me has a higher rank than I, for He existed before me

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For of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and grace upon grace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로 6 개월 전에 친족 중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John the Baptist was born six months earlier to a relative of Jesus, through God's absolute power and grace, in preparation for Jesus' coming.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통하여 제자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The apostle John, who wrote this text, is trying to convey something about the lives of disciples like us,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Jesus' birth and John the Baptist.

사도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이 말씀은 곧 하나님도 되셨다”(1절)고 전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testimony of the Apostle John,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verse 1).

이곳에서 “이 말씀”이 곧 유일한 그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 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Here, it is not being said that "this Word" is the one and only God, but rather that "this Word" was with God, and "this Word" was also God.

즉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이 말씀”이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이라는 내용입니다 In other words, the text states that God and "this word" are different, yet they are the same God.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It holds great theological significance.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2절) 뿐만이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3절)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The Word was with God” (verse 2), and not only that, but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and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verse 3).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1절)라고 하신 말씀에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his statement shows that it was in conjunction with the statement,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Genesis 1:1).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4절)고 하셨습니다 And it says, “In him was life, and that life was the light of all mankind” (verse 4).

이 내용에서 “그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생명”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빛”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In this passage, “within it” refers to the Triune God, “this life” refers to eternal life, and “the light of mankind” refers to the gospel.

이어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5절)라고 하셨는데 영생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빛인 복음을 이 세상에 전했지만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세상은 빛이 왔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The passage continues,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verse 5). This means that although the gospel, which is the light of our God for eternal life, was proclaimed to this world, the world, which was in darkness, did not understand or recognize the light when it came.

이 참 빛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보낸 사람이 있으니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6절)
There was a man sent from God, whose name was John, to bear witness to this light (verse 6).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증언으로 인하여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참 빛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7절) John the Baptist was born into this world to testify about the true light, so that through his testimony, all people might know and believe in the true light who came into this world as life (verse 7).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8절)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apostle John further emphasizes



concerning John the Baptist, "He was not the light, but came to testify about the light" (verse 8).

그리고 사도 요한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9-10 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And the apostle John wrote, “The true light, which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He was in the world, and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verses 9-10).

예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계셨으며, 그 복음을 주신 예수님까지 이 세상에 오셨으나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This passage describes how Jesus's gospel was present in this world, and how Jesus himself, who gave that gospel, also came to this world, yet the people of this world did not recognize him.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만드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땅에 오셨어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11 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Because this world was created by our Lord Jesus Christ together with God the Father, the Apostle John records, "(Jesus) came to his own, but his own people did not receive him" (verse 11).

이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곳에 아버지의 영을 불어넣어 “자기 백성”으로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This passage states that Jesus created this world, which is why it's called "His own land," and that He, along with God the Father, created humanity from dust and breathed God's spirit into them, making them "His own people," but that people did not accept Him.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12-13 절)고 하셨습니다 However, Jesus said, “But to all who did receive him,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nor of human decision or a husband's will, but born of God” (verses 12-13).

이 내용은 영접하는 즉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위로부터 즉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This passage means that those who receive and believe—that is,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can become



children of God. This power to become children of God is given from above, from God the Father, only to those who are born of God, that is, those who are born again through faith and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The condition for becoming a child of God is having a relationship with the Triune God.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아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었으므로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14 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In the Old Testament, the Messiah spoken of by the Law and the Prophets referred to Jesus, who came in the flesh. Therefore, the passage states,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So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verse 14).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모습보다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이루는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Therefore, what is central to achieving salvation is not the form in which Jesus came to this earth as a human being, but the word of God that He proclaimed on this earth.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미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쳐 증언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 곧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킨다”(15 절)고 기록한 것입니다 The apostle John recorded that John the Baptist, who was chosen by God in advance to bear witness to Jesus, testified with great conviction and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bout Jesus who had come to this earth, saying, "This is the one I meant when I said, 'He who comes after me has surpassed me because he was before me.'" (verse 15).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16 절)고 고백한 것입니다 Therefore, the apostle John confessed,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we have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another" (verse 16).

이곳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게 되니 은혜 위에 은혜다 는 내용입니다 Here, the phrase "from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means that we, as believers, receive grace upon grace because we come to know Jesus, whom God the Father sent, through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된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This means that the blessing of believing in Jesus, through the Holy Spirit, as the Messiah—the Christ sent by God the Father—and of living in the eternal kingdom, is the greatest grace among all of God's graces.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Dear Saints in faith!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Through this passage, there is a message that our Lord Jesus wants to give us.

먼저, 우리 성도들은 세례 요한처럼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7 절) First, the passage emphasizes that we, as Saints, should be witnesses to Jesus, who is the true light, just like John the Baptist (verse 7).

둘째, 우리 성도들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12 절) Secondly, it means that we must help our fellow Saints to receive Jesus, who is the true light, and become children of God (verse 12).

셋째, 우리 성도들은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13 절) Third, this passage emphasizes that we, as Saints, should not proclaim Jesus, who is the true light, based on our own knowledge, but only through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verse 13).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May the grace, love, and blessings of our Lord be upon you, that you may become a holy saint who believes in Jesus as Lord, i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live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the Father. I pray thi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Amen.